

지역 생산 농산물 판로확대 염원

전주농협, 로컬푸드&하나로마트 효자점 개점

전주농협(조합장 임인규)은 26일 농협전북본부에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로컬푸드&하나로마트 효자점' 개점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임인규 조합장 및 임원, 대의원, 영농회장 등 전주농협 내부 조직장을 비롯해, 정재호 전북농협 본부장, 관내 농축협 조합장, 운방섭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전북도의원, 전주시의원, 외부인사 등 300여 명이 함께하며 개점을 축하하고 우리 농산물을

판로확대를 염원했다.

지난 20일 오픈한 전주농협 로컬푸드&하나로마트 효자점은 지역주민의 관심 속에 오픈 첫날부터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약 400평 규모의 매장에 다양하고 신선한 농축산물과 공산품을 비롯해 수산물 코너를 새롭게 선보이며 소비자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특히, 로컬푸드 매장이 흡인습 형태로 운영되어 지역 농업인 등이 생산한 신선하고 안전한 우리 농산물도 만나볼 수 있다.

전주농협은 기존 운영방식과 차별화를 위해 리모델링을 통해 판매 공간을 넓히고 주변 상권과 유동인구 특성을 분석해 식자재·생필품·문구 코너 등을 새롭게 마련하고 물품도 다양하게 준비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주변 여건을 반영해 영업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늘려 운영하며, 판매장 레이아웃 재조정으로 고객에게 편의성과 즐기는 소풍문화 서비스 제공으로 우리 농산물 소비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매장 인근에는 전북농협과 전북도청, KBS방송국, 전주상공회의소, 각 정당 등 공공기관을 비롯해 주상복합아파트, 다세대주택, 원룸 등이 위치해 평소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며 홍보 및 우수상품 진열시 고객 확보 및 활성화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인규 조합장은 "로컬푸드&하나로마트 효자점을 통해 농민 조합원이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우선 취급하여 지역농가들의 판로 확대에 힘쓰고 시민들에게는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전주농협은 소비자인 도시민과 생산자인 농민 조합원 모두에게 환한 웃음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주농협은 26일 농협전북본부에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로확대를 위한 '로컬푸드&하나로마트 효자점' 개점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임인규 조합장 등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는 모습.

전북은행, 보이오피싱 범죄예방 위한 협약 체결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지난 26일 전북도청 야외 공연장에서 보이오피싱 범죄예방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갈수록 진화하는 금융사기를 사전에 근절하고 누구에게나 안전한 금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민관 합동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북은행 서한국 은행장, TBN전북교통방송 이정상 사장, 전라북도경찰청 배대희 수사부장, 전라북도지치경찰위원회 이형규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전북은행은 보이오피싱 범죄로부터 고객들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고 금융피해 예방을 위해 이번 협약에 참여했으며, 향후 보이오피싱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협력, 의심사례신고 등 피해 예방 홍보강화, 예방 관련 프로그램 및 캠페인 방송 등에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서한국 은행장은 "금융사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예방 교육을 펼침으로써 금융으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농협, 농축협 임직원 대상 디지털 금융교육

전주농협(본부장 정재호)은 26일 농협전북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농·축협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금융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속 가능한 디지털 전환을 통한 전북농협 비전'을 고객기반 확보'를 위해 실시된 가운데, 농협중앙회 디지털 담당 팀장으로부터 최신 디지털 문화 확산은 농·축협 고객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사항"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전북농협이 전국을 대표하는 디지털 금융 메카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드론 직과 핵심 재배기술 더욱 고도화”

조재호 농진청장, 충남 부여 무인항공 살포기 이용 직파 연시회 현장 찾아

논에 직접 병충약을 뿌리는 직파재배는 이앙(모내기)재배에 필수적인 못자리 설치, 육묘, 모판 옮기기 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 효과를 가져온다. 최근에는 농업용 무인 항공 살포기(이하 드론) 보급이 확대되면서 드론을 이용한 직파재배 비중이 늘고 있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26일 충남 부여군 양화면에서 열린 '농업용 무인항공 살포기 이용 직파 연시회' 현장을 찾았다. 조 청장은 농촌진흥청이 현장 드론 직파재배 기술의 현장 적용 사례를 살펴보고, 벼 직파재배 작목반·연구회·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드론 직파 확대를 위한 의견을 들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정읍·김제·고창 등 17개 지역에서 드론을 이용한 직파재배와 병해충 방제 기술을 적용



드론을 조종하고 있는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조 청장은 "드론 직파가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면 벼농사(전산) 과정 기계화 작업을 100퍼센트 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드론 직파의 핵심 재배기술을 더욱 고도화하고, 올해 추진한 시범 재배 단지의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해 드론 직파의 재배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겠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은 농업기술의 연구·개발과 현장 보급을 통해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중소·벤처기업 60년의 발걸음, 100년의 희망’

대통령실 잔디광장서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중소기업부(장관 이영)는 26일 대통령실 잔디광장(용산)에서 2022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새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에서 열린 첫 행사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정부가 함께 대한민국의 역동적 혁신성장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올해 33회째를 맞은 중소기업인 대회는 일자리, 수출, 사회기여 등 한국경제 발전에 공헌한 중소기업의 성과를 되짚어 보고, 자

과생성을 통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 중소기업 유관단체, 중소기업 유공자 등 50여명이 행사에 참석했으며, 모범중소기업인 모범근로자, 육성공로자, 우수단체에게 금탑산업훈장 등 총 38점 규모로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올해 금탑산업훈장의 영에는 주보민 삼흥철차 대표와 김동우 신우테크 리트스(주)대표가 안았다.

이러진 공식 만찬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간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혁신성장을 추진해 나가길 행하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공정

과생성을 통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 중소기업 유관단체, 중소기업 유공자 등 50여명이 행사에 참석했으며, 모범중소기업인 모범근로자, 육성공로자, 우수단체에게 금탑산업훈장 등 총 38점 규모로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올해 금탑산업훈장의 영에는 주보민 삼흥철차 대표와 김동우 신우테크 리트스(주)대표가 안았다.

이러진 공식 만찬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간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혁신성장을 추진해 나가길 행하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공정

/김윤상 기자

‘18년 연속’ 우수콜센터

국민연금, KSOI 조사서 선정돼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국민연금 1355 콜센터'가 2022년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KSQI) 조사에서 18년 연속 '한국의 우수콜센터'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서비스품질지수(KSQI)는 54개 산업, 329개 기관과 기업의 콜센터를 대상으로 업무처리, 상담태도 등 콜센터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매년 실시하는 평가다.

공단은 서비스 품질 영역에서 91점을 받아 2005년 이후 2018년 연속으로 '한국의 우수콜센터'로 선정됐다. 조사항목별로는 '서비스 상담태도'에서 10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으며 서비스 업무처리(99점)와 종료태도(98점) 등 서비스 품질 영역 전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공단은 그간 상담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에 중점을 두어 다양한 상담 채널을 운영

하는 등 상담 서비스 개선을 위해 힘써왔다. 청각·언어 장애인에게 전문수어상담사를 통한 영상수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상담을 받기 위해 수어통역사와 함께 내방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했다. 또한,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콜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채팅상담 서비스와 24시간 챗봇 상담 서비스 등 비대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공단은 지난 4월 기획재정부 주관한 2021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을 달성했다.

박정배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18년 연속 우수콜센터 선정은 공단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고품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통해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북도가 인삼가공제품 전문 생산기업인 진앤삼이 진안군 부귀면에 부설 연구소를 설립하고, 26일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삼가공식품 전문 생산기업 진안 부귀에 부설연구소 설립

진앤삼, 2년 내 60억 투자 공장 추가 건립

전북도가 인삼가공제품 전문 생산기업인 '진앤삼' (대표 강성원)이 전북 진안군 부귀면에 부설 연구소를 설립하고, 26일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창열 진안부군수, 양선화 도 투자금융과장 김태영 진안홍삼연구소장, 인삼가공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진앤삼 부설 연구소는 앞으로 인삼의 효능을 극대화한 흑삼 제품을 집중적으로 연구·개발하게 된다.

앞서 연구소는 특이사포닌 함량이 기존의 홍삼이나 흑삼보다 다양 함유된 흑삼(제품명 천351)을 개발해 인삼 가공제품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흑삼은 최고 품질의 수삼을 80도~105도 사이의 고온에서 120시간 이상 찌고 숙성시키는 특수 가공법으로 만들었다.

진앤삼은 선도할 계획이다.

'진앤삼'은 우선 주문자상표부차(OEM) 방식으로 제품을 만들며, 2년 안에 60억 원을 투입해 인근에 공장을 짓고 직접 생산할 방침이다.

특히, 원료로 진안의 우수한 6년근 인삼을 우선 구매할 예정이며 농가 판로 확보와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성원 진앤삼 대표는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최고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건강을 선물하는 기업이 되겠다"며 "무엇보다 국내에 안주하지 않고 중국을 비롯한 세계 시장에 진출해 세계를 뒤흔들던 '고려인삼'의 명성을 되찾겠다"고 말했다.

/유호성 기자·진안=우태만 기자

4월 전북 수출 7억2631만불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박준우)가 26일 발표한 2022년 4월 전라북도 무역동향'에 따르면, 전북지역 4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3%가 증가한 7억2631만 달러, 수입은 7.2%가 증가한 5억5968만 달러로 집계됐으며 무역수지는 1억6663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농야및의약품, 합성수지, 동제품이 높은 수출실적을 기록했으며, 국가별 수출실적에서는 중국의 감소세와 미국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4월까지 누적 기준으로 미국이 전북의 최대 수출국으로 기록됐다.

/김윤상 기자